

전 남

영망진창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 수령에 부부 명의만 달라도 각각 지원

도, 부정적 65건 적발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림사업이 중복·편중지원 되는 등 부정적하게 사용되고,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최근 합평 등 5개 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부적격자에게 특혜 지원되거나 부적정하게 지원된 65건을 적발해 시정 및 개선 명령과 주의 조치하고, 6억여 원을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합평, 구례, 화순, 곡성, 장흥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농림사업 보조금이 특정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평군 A씨는 조사료 생산장비 등 23회에 걸쳐 11억여원을 받았고, 화순군 B 영농법인인은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등 12회에 걸쳐 22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또 장흥군 C 영농조합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등 9회에 17억여원을 지원받는 등 농림사업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또 2ha미만 소규모 과수·화훼 생산 농가에 지원돼야 할 농산물 소형 운저장고 지원도 2ha 이상 농가에 11건이나 지원됐고, 합평군에서는 부부가 명의의 달라도 각각 지원받기도 했다.

총 출자자본 1억원 이상의 법인에서 지원되는 영농조합 법인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구례군 D영농조합 법인은 출자자본이 7000만원이고, 조합원 7명 중 4명이 가족이었는데도 12억원을 받았고, 화순군 E 전통식품도 조합원 중 2명이 부부인데도 3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55억원을 지원받은 구례 산수유클러스터는 생산설비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서 허위로 정산 보고를 하고, 보조금 목적 외에 4억5000만원을 써 법인 대표가 고발 조치당했다.

또 구례 산수유 클러스터는 보조금으로 구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방재용 무인헬기를 6년간 경기도의 한 업체에 임대했다가 적발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바다 우리가 지킨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최근 여수시 만성리 인근 해상에서 불법도주 외국선박 나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중형 경비함 2척(500t급, 300t급)을 비롯해 경비함정 6척·방제정 1척과 100여 명이 참여했다.

〈여수해경 제공〉

‘점입가경’ 광양시의회 의장선거

‘4대 江 사진전’

K-Water 내달 1일까지

후보 난립·의장 재선 불가론 대두…판도 오리무중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7월 2일 치러질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 ‘의장 재선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어 현재까지 누구도 유리한 상황을 점치기 어렵게 됐다.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장명환·이정문 전 의장, 박노신 현 의장은 ‘의장 재선 불가론’ 등의 여론에 밀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재선 의원이며 민주당합당 소속인 이서기 현 부의장과 정현완 의원간에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 가운데 3명의 통합 진보당 의원들과 무소속 2명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12명 의원중 과반이 넘는 7명의 시의원을 배출한 민주당합당 소속 의장후보가 단일화 됐을 때 절대적으로 유리하나 유력 두 후보가 뜻

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경쟁할 경우 의장선거는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어느 후보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자리를 놓고 통합진보당, 무소속 초선 의원들과 교통정리를 잘해 연대를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의장구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합당 7명 ▲통합진보당 3명 ▲무소속 2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K-Water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영산강문화관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강(江)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 물관련 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난민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환경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진전은 재난·복구·희망·예방이라는 주제로 ▲재난의 실상 ▲복구 노력 ▲복구 후 달라진 모습 ▲대강 사업으로 변모한 우리 강의 모습 등 재난을 대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완도 청해진 국악단’ 일본 가다

도교육청 지원 문화교류…동경서 공연

완도지역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청해진 국악 관현악단’〈사진〉이 일본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완도 교육지원청(교육장 장진숙)에 따르면 ‘청해진 국악 관현악단’(지도교사 송삼섭)이 지난 23~24일 이틀간 일본 동경 나가노구 노가타 구민홀(노가타 WIZ)에서 2차례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전남도교육청, 완도군청, 완도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찾아

가는 재외동포 문화활동 및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겸 문화교류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일본 공연에는 완도 중앙초등학교와 군외초, 완도중, 완도여중, 보길중, 국립 국악중 등 6개 학교 13명이 참가했다.

‘청해진 국악 관현악단’은 지난 2010년부터 완도 중앙초등학교(교장 정연례)에 동지를 틀고 전남도교육청, 완도군청, 완도 교육지원청의 지

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 20회 대통령배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농·어

촌이라는 지역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실력을 갈고 닦아왔다”며 “이번 일본 공연을 경험 삼아 더 큰 세계로의 무대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 강강술래 국민 놀이문화로

전남 창조지역사업 3건 선정…국비 15억 확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창조지역사업에 해남군의 ‘강강술래(사진) 대중화 및 문화관광 상품화 추진사업’ 등 전남 지역에서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해 아이터를 발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신청한 116개 사업 중 지역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 평가를 통해 전국 14건(총 50억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해남군의 무형자산을 활용한 ‘강강술래 대중화 및 문화관광 상품화 사업’과 나주시와 경북 영주시가 공동 입안한 ‘나주배 & 영주사과 공동마케팅 협력사업’, 보성군의 ‘한국차박물관 찾아오기 가는 청소년 다례교육’이다.

‘강강술래 대중화 및 문화관광 상품화 사업’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를 소재로 발굴한 사업이다. 앞으로 2년 동안 국비 3억5700만원을 지원받아 놀

이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강강술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배 & 영주사과 공동마케팅 협력사업’은 양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와 영주사과를 생산자 조직과 연계해 함께 포장하고 상품화해 공동 판매 및 홍보하는 사업이다. 2년간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공동 포장재 제작 지원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차 박물관 찾아오기 가는 청소년 다례교육’은 커피 열풍에 밀려 녹차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에 청소년 시기부터 전통차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년간 국비 2억7200만원을 지원받아 보성에 소재한 한국차박물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다례교육을 실시한다.

전남도 배략휴 정책기획관은 “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의 유·무형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文)·화(和)·경(境)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사계절 관광지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개장일 : 2012. 6. 29